2016. 11. 22.(화) 언론보도 스크랩

중부일보

2016년 11월 22일 (화)
11면 문화

작품 왼쪽부터 류신정 作 'Tomorrow Blue', 하원 作 '높이 높이 날아라 종이비행기'.

차디 찬 임진강변 철조망 예술옷을 입다

'꿈과 희망, 날개를 달다'展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 구간이 통일의 염원과 희망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메워진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DMZ의 안보, 생태, 문화예술을 연계하는 통일희망 예술 프로젝트인 155마일 예술 프로젝트 '155 Mile Art Project'의 일환으로 국내 시각예술작가 8명이 참여하는 '꿈과 희망, 날개를 달다(Hope and Dreams Soar with Wings)'展을 연다.

경기관광공사는 매년 국내·외 예술가를 초청해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거쳐 율곡습지공원으로 이어지는 9.1㎞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예술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전쟁의 아픈 상처가 고스란히 남은 분단의 상징, 철책을 예술로 장식해 함께 통일의 희망을 꿈꾸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어 온 예술 프로젝트는 올해 철책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전시 타이틀인 '꿈과 희망, 날개를 달다'는 철책 예술작품 속에 녹아있는 예술가들의 마음과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한 모든 이의 염원에 날개를 달아 통일의 순간이 보다 빠르게 다가오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전시에는 김승영, 노준, 류신정, 박기진, 박선기, 서선영, 이승구, 하원 등 8명의 국내작가가 참여했다.

예술 프로젝트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매년 국내외 작가들이 철책 위에 새롭게 그려가는 글로벌 예술 프로젝트로 성장해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관람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홈페이지(imjingang.walkyourdmz.com)에서 사전 신청 시 가능하다.

박현민기자

15.7 X 15.2 cm

경기신문

2016년 11월 22일 (화)
03면 종합

방문객들이 파주 임진강 철책선에서 전시된 작품을 보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임진강변 철책길서 '꿈·희망의 날개' 감상하세요

경기관광公, 전시회 오픈 오디오 가이드로 작품 해설

경기관광공사는 파주 임진강변 철책길에 생태·예술·안보·관광을 접목한 '꿈과 희망, 날개를 달자 2016展(전)'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코뮤지엄거리로도 불리는 이 임진강변 철책길은 군 순찰로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 DMZ 자전거투어·걷기행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다 올 초부터 전면 개방됐다.

이번 전시는 분단과 경계의 이미지가 강했던 철책선에 예술작품을 달아 통일의 꿈과 희망에 날개를 달아보자는 취지다.

전시에는 김승영, 노준, 류신정 등 국내외 유명작가 8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특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가이드온을 통해 오디오로 작품의 사진과 해설을 들으며 감상할 수 있다.

18일 처음 개시된 오디오 가이드 프로그램 탐방에선 탐방객 180여명이 기존 전시됐던 오래된 고무신 새싹 플립플랩 교체 등 작품을 보수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트레킹은 1일 1회, 10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 접수되며 신청은 홈페이지(http://imjingang.walkyourdmz.com)로 하면 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철책길을 따라 임진강변의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민통선 내 보전된 아름다운 생태자원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작품 감상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전시회는 지난 2010년 3개 작품으로 시작, 매년 해마다 작품수를 늘려 현재 총 34개 작품이 전시 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15.2 X 18.5 cm